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

웹페이지 시나리오

소속 : 3반 2팀

작성자 : 김진희

작성날짜 : 2019/06/24

버전 : 1.0.0

[유저 시나리오]

총 6종류의 유저

1. 행정팀
2. 영업팀
3. 강사팀
4. 학생 등록전 회원
5. 학생 등록후 회원
6. 비회원

예상 행사	예상 일정
웹페이지 오픈 일정	2019/06/21
첫번째 자바과정 개강	2019/07/01
두번째 DB과정 개강 일정	2019/08/01
세번째 WEB과정 개강 일정	2019/09/01

<행정팀 유저 시나리오>

유저 상세 : 행정팀 김행정씨

- **행정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

- 로그인(로그인/로그아웃)
- 학생관리(상세보기, 등록, 수정, 삭제)
- 강좌관리(상세보기, 등록, 수정, 삭제)
- 강사관리(상세보기, 등록, 수정, 삭제)
- 문의관리(상세보기, 답변, 수정, 삭제)
- 일정관리(상세보기, 등록, 수정, 삭제)
- 쪽지(상세보기, 보내기, 받기, 답변하기)

1. 첫번째 과정 개강 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강좌 개설 및 강사등록 및 학생등록

방문 날짜 : 2019/06/24 (첫번째 과정 개강 전)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의 행정팀으로 일하고 있는 김행정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 개설된 웹페이지를 방문했다. 메인화면에 슬라이더로 전환되고 있는 7월 개강이미지를 본 행정씨는 새출발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자신과 함께 안양지점에서 새출발하시는 강사님들을 등록하기 위해 이러닝센터(웹 LMS시스템)를 찾았다. 웹페이지 로고 밑에 있는 메뉴바에 e-learning을 발견한 행정씨는 이러닝센터로 넘어갔다.

로그인창이 뜨자 메모장을 뒤적거리 미리 받아놓은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확인을 눌렀는데 갑자기 [로그인 실패 :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오류창이 떴다. 다시 한번 한 자 한 자 누르고 확인을 눌렀지만 여전히 같은 오류창이 떴다. 당황한 행정씨는 웹페이지 제작사에 전화를 했고 그제서야 메모장에 적힌 비밀번호 중 한자리를 자신이 잘못받아적었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 로그인을 하니 제대로 LMS시스템에 접속되었다.

메인페이지가 떴지만 아직 아무 일정도 등록하지 않아서 달력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대신 달력 아래쪽 신청현황을 나타내는 칸에는 새로운 신청이 2건있다는 표시가 굵은글씨로 적혀있었다. 일단 강사님들을 추가한 후 신청을 받자고 생각한 행정씨는 강사관리 메뉴를 눌렀다.

강사관리 메뉴로 들어가자 아직 아무 강사님도 추가하지 않아 빈 목록창이 보였다. 빈 목록창 위쪽에 있는 강사 등록 버튼을 누르자 등록폼 페이지로 넘어갔다. 먼저 며칠 전 강사님들에게 받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7월 자바과정에 어울리는 강사님을 뽑았다. 강사님의 정보를

등록폼에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다. 사진과 이름, 경력사항 등을 간단하게 적었다.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한 뒤 확인버튼을 누르자 장강사님의 이름과 간단한 소개사항이 목록창에 등록된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7월 자바과정 강좌 개강을 등록하기 위해서 로고 아래에 있는 메뉴바에서 강좌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아직 아무 강좌도 등록하지 않아 빈 목록창이 보였다. 빈 목록창 위쪽에 있는 강좌 등록 버튼을 누르자 등록폼 페이지로 넘어갔다. 오늘이 6월 24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강좌기간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10월 1일에 끝나도록 설정되었다. 따라서 행정씨는 강좌 이름과 강좌 내용, 강사님, 최대인원, 최소인원, 강좌회차만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눌렀다. 목록창에 JAVA과정이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한번 더 클릭하여 상세내용을 다시 살펴본 뒤 로고를 눌러 메인페이지로 넘어갔다.

메인페이지 달력을 7월으로 넘기니 JAVA과정 개강일정이 추가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 강사관리 메뉴를 클릭했더니 강사 이름, 간단한 소개사항 그리고 아까 강사를 등록할 때까지만해도 비어있던 말은반 칼럼에 7월_JAVA라고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것을 신기해 하던 행정씨는 강좌관리 메뉴로 가서 아까 추가한 강좌도 다시 확인해 보고 로고를 눌러 메인페이지로 다시 돌아왔다.

행정씨는 창을 종료하려다가 신청현황이 굵은 글씨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아까 확인하려다 깜빡한것을 기억해냈다. 신청현황을 클릭했더니 신청자 목록에 두 사람이 새로 떠 있었다. 두 사람 다 7월에 새로 시작하는 JAVA과정으로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 정원 30명으로 설정한 JAVA과정이기 때문에 신청 목록을 클릭하여 신청폼을 성실히 작성하기만 했으면 확정을 눌러 확정자명단으로 넘겼다. 로고 밑에 있는 메뉴바에서 학생관리 메뉴로 들어가 아까 확정자 두명이 추가된 학생목록에서 반 칼럼의 내용을 드롭박스를 통해 JAVA과정으로 바꾸고 목록 밑에 있는 확인버튼을 눌러서 확정했다. 학생목록에서 학생을 개별적으로 클릭해 학생의 반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목록에서 바로 반배정이 가능하다는 것에 편리함을 느꼈다. 뿌듯한 마음으로 행정씨는 창을 종료했다.

2. 첫번째 과정 개강 후, 두번째 과정 개강 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강좌 개설, 수정 및 학생 관리, 문의 관리

방문 날짜 : 2019/07/24 (첫번째 과정 개강 후, 두번째 과정 개강 전)

오늘도 열심히 일 하고 있는 행정씨는 JAVA과정이 개강한 후 하루에 적어도 한번 이상 학생들의 출결을 체크하고 있다. 비트교육센터의 LMS시스템 메인페이지를 이미 즐겨찾기로 추가해놨기때문에 굳이 비트교육센터 웹페이지를 경유하지 않고 클릭 한번으로 바로 LMS시스템 로그인창으로 연결됐다. 행정팀 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MS시스템에 접속하였다.

접속하자마자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읽지 않은 쪽지 2개를 나타내는 빨간 숫자가 떠있어 클릭하였다. 쪽지 목록창이 새창으로 뜨고 총 10개의 메시지에서 회색글씨가 아닌 검정색글씨로 되어있는 상단 2개가 새롭게 온 쪽지였다. 제일 상단의 하나를 클릭해보니 지난 주에 공지사항을 전해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어서 상세내용을 확인만하고 답장은 하지않고 창을 닫았다. 나머지 하나는 이번에 개강하는 자바강사님에게 온 질문쪽지였기 때문에 내용 아래에 있는 답장버튼을 눌러 상세하게 답변을 적어 보냈다.

쪽지 목록창을 모두 닫은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일정을 한번 훑어보았다. 7월 12일에는 이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java과정에서 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7월 29일에는 강사님의 사정으로 인해 휴강이 결정되어 빨간색표시로 휴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전에 행정씨가 강사님으로부터 미리 전해들어 메뉴바의 일정관리메뉴에서 휴강일정을 새롭게 등록한 것이었다. 이제 8월달로 달력을 넘기는데 새하얀 달력에 잠시 당황한 행정씨는 이윽고 자신이 8월 DB과정을 아직까지 개강목록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떠올렸다.

바로 로고 아래 메뉴바의 강좌관리 메뉴를 눌러 강좌목록창으로 들어갔다. JAVA과정이 목록창에 보이고 그 위의 등록버튼을 통해 등록폼 페이지로 넘어갔다. 오늘이 7월 24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강좌기간이 8월 1일부터 시작되어 11월 1일에 끝나도록 설정되었다. 따라서 행정씨는 강좌 이름과 강좌 내용, 강사님, 최대인원, 최소인원, 강좌회차만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눌렀다.

목록창에서 JAVA과정 밑에 DB과정이 새롭게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로고를 눌러 메인페이지로 가려다 JAVA과정 강사님의 말이 생각나 목록창에 JAVA과정을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넘어갔다. 강사님이 과정 후반에 수업을 조금 다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수정된 강의계획안을 보내주셨었다. 행정씨는 강좌 상세페이지의 밑부분에 있는 수정버튼을 눌러 강좌내용부분만 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수정하였다. 수정 후 확인버튼을 누르자 상세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수정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씨는 JAVA과정에서 벌써 출결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메뉴바의 학생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학생목록창에 전체 학생이 모두 뜨는데 목록창 상단 우측에 드롭박스를 통해 출결낮은순으로 필터링을 하였다. 수강전체기간 중 결석일이 퍼센트로 계산되어 학생 목록에 표시되었다. 일단 목록을 보며 전체기간의 15%이상이 결석인 학생들을 학생목록 좌측에 개별적으로 있는

체크박스로 선택하였다. 3명의 학생을 선택하고 목록 우측 하단에 있는 쪽지보내기 버튼을 눌러 세명에게 모두 같은 내용을 경고쪽지를 보냈다. 그 와중에 전체기간의 20% 넘는 학생이 한명 존재하는 것에 놀란 행정씨는 그 학생을 체크박스로 선택하여 삭제버튼을 눌렀다. 삭제버튼을 누르면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삭제명단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끔 출석이 인정되는 각종 서류들을 나중에 갖고 오는 경우 다시 복구할 수 있다. [1명의 학생이 삭제명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삭제명단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에서 yes를 선택했더니 삭제명단 페이지로 넘어갔다. 삭제명단 페이지에 아까 보낸 학생이 있는 걸 확인한 행정씨는 로고를 눌러 메인페이지로 돌아갔다.

메인페이지로 돌아갔더니 아까는 0이었던 문의현황에 3개의 새로운 문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의현황을 클릭했더니 문의목록 페이지로 넘어갔다. 3페이지가 넘는 문의 목록의 1페이지에 3개의 문의가 새롭게 추가되어 검고 굵은 글씨로 표현되어있었다. “저희 결석 4번부터 훈련지원금 못받는 건가요?” 라는 문의를 먼저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넘어갔다. “제가 이제 내일이면 결석이 한달내에 4번이 되는건데 그러면 훈련지원금이 안 나오나요?”라는 내용 밑에 답변을 클릭하여 답변보내기 페이지로 넘어갔다. 제목은 자동으로 “RE: 저희 결석 4번부터 훈련지원금 못받는 건가요?”라고 설정되어 내용만을 입력한 채 확인을 눌렀더니 자동으로 문의목록 페이지로 넘어갔다. 상태가 답변완료로 바뀌어져 있고 글씨도 회색 일반글씨로 변경되어 표현됐다. 나머지 2개의 문의도 똑같이 답변을 한 뒤 다시 문의 상세로 들어가 밑에 추가된 답변박스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의 문의에서 오타를 발견했다. 행정씨는 바로 답변박스 우측 하단에 있는 수정버튼을 눌러 오타를 수정했다. 오타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 문의 상세로 들어가 밑에 추가된 답변박스를 봤는데 아예 다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다. 행정씨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를 다섯번 중얼거리며 답변박스 우측 하단 수정버튼 옆에 있는 삭제버튼을 눌러 아예 답변을 삭제하고 목록으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아까 답변을 했을 때는 답변완료에 회색 일반글씨였던 목록이 다시 답변전에 굵은 검정글씨로 돌아와있었다. 다시 그 목록을 클릭하여 문의 상세로 넘어간 행정씨는 정확하게 답변을 적고 다섯번 확인한 뒤 확인버튼을 눌렀다. 답변박스의 내용을 다시 확인한 행정씨는 목록으로 돌아가 남은 문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을 종료했다.

3. 세번째과정 개강 후, 첫번째 과정 수료 직후

방문 주요 목적 : 강좌 삭제 및 강사수정 및 일정관리 및 취업팀 연계

방문 날짜 : 2019/10/02 (첫번째 과정 수료 직후)

오늘 행정씨는 WEB과정 주강사님께 죄송합니다를 3번 반복하였다. 9월 1일 WEB과정이 개강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학생들에게 나눠 준 강사 프로필이 잘못되어 있던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것도 강사님이 직접 오셔서 항의하셨다. 행정씨는 바로 LMS 시스템에 접속하여 빠르게 로그인하고 메뉴바의 강사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강사목록에서 주강사님을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접속하고 우측하단에 있는 수정버튼을 눌렀다. 나이와 경력사항 등 잘못 입력한 부분을 수정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똑바로 수정완료 되었고 다시 한번 확인한 행정씨는 주강사님께 정상적으로 수정완료했다는 문자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덧붙였다.

한숨돌린 행정씨는 강사목록으로 돌아와 페이지를 보는데 JAVA과정을 끝으로 비트교육센터를 떠나신 장강사님이 있는 걸 보았다. 오늘 모든 JAVA과정 자료를 취업팀으로 넘겼으니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강사목록에서 체크박스로 장강사님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삭제버튼을 통해 삭제 하였다.

이왕 삭제하는 김에 JAVA강좌도 삭제하기 위해 메뉴바에서 강좌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3개월동안 JAVA과정을 관리했던 생각이 나서 강좌목록창에서 JAVA과정을 눌러 상세페이지로 들어갔다. 처음부터 천천히 보며 회상에 빠졌던 행정씨는 이제는 JAVA과정을 보내줄 때라고 생각하며 상세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삭제버튼을 눌렀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떴지만 미련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 목록창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로고를 눌러 메인페이지로 돌아갔다.

메인페이지에서 달력을 통해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 하던 행정씨는 10월 17일에 있던 DB과정 시험이 18일로 변경되었다는 쪽지를 받은 기억이 났다. 달력 17일에 떠있던 DB시험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자 일정 상세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세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수정버튼을 눌렀다. 기간이 2019년 10월 17일 에서 10월 17일로 설정되어있는 것을 2019년 10월 18일 시작 10월 18일 종료로 수정하고 확인버튼을 눌렀다. 수정이 제대로 된 것을 달력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일정을 확인하다가 10월 31일에 강사님 사정으로 휴강예정이었던 일정을 다시 휴강취소해달라는 부탁이 기억났다. 31일 주강사님 휴강 글씨를 클릭하자 일정 상세페이지로 넘어갔고 상세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에 바로 확인을 눌렀더니 달력창으로 바로 넘어갔다. 달력에서 일정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다시 로고를 눌러 메인페이지로 돌아왔다.

그 와중에 문의가 하나 새롭게 온 게 있어서 행정씨는 문의현황을 클릭하여 문의목록으로 넘어갔다. “안녕하세요 제가 수강신청 때 잘못쓴게 있어서요” 라는 새 문의글을 클릭하고 상세페이지를 살펴보았다. “수강신청 때 전공만 쓰고 복수전공을 안써서 혹시 수정이 되는지 몰라서 일단 문의남깁니다. 복수전공을 생명공학으로 표기해주세요”라는 문의글이었다. 행정씨는 메뉴바에서 바로 학생관리로 들어가서 학생 목록에서 아까 문의글을 넣은 학생 이름을 검색하였다. 한명이 떴기 때문에 바로 학생 상세페이지로 들어가 확인했더니 복수전공란이 공란인 것을 보고

수정버튼을 눌렀다. 복수전공란에 생명공학이라고 작성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 상세정보가 제대로 수정됐는지 확인하였다. 행정씨는 다시 메뉴바에서 문의목록으로 넘어갔고 아까 그 문의를 클릭하고 답변버튼을 눌러서 답변을 작성했다. 수정이 잘 완료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을 남기고 확인버튼을 눌렀고 답변박스의 내용을 확인한 뒤 창을 종료했다.

〈영업팀 유저 시나리오〉

유저 상세 : 영업팀 박영업씨

- 영업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
 - 로그인(로그인/로그아웃)
 - 강좌정보(상세보기, 입력, 수정, 삭제)
 - 수강후기(상세보기, 삭제)
 - 공지사항(상세보기, 입력, 수정, 삭제)
 - Q&A(상세보기, 답변, 수정, 삭제)
 - 자료실(자료 업로드, 자료 수정)

1. 홈페이지 일반 오픈 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강좌 정보 입력, 자료 업로드, 공지사항 입력, 마케팅

방문 날짜 : 2019/06/20 (홈페이지 일반 오픈 전)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의 영업팀 박영업씨는 홈페이지를 전체에게 공개하기 전 마케팅이나 공지사항 등 정보 입력을 위해 관리자 아이디를 받아놓았다. 주소창으로 홈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하여 접근하였다. 메인페이지가 뜨고 아직 홍보이미지를 입력하지 않아 임시이미지가 전환되고 있는 슬라이더가 보였다. 일단 슬라이더의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있는 [login/join]을 클릭하였다. 로그인 모달창이 뜨고 영업팀 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렀다. 메인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영업팀 환영합니다!”라고 적혀있고 한줄 띄고 [logout]이 적혀있었다. 또 슬라이더 우측 하단에 이미지 수정 버튼이 생겨났다. 이미지 수정 버튼을 누르니 새창에 파일 업로드 창이 떴다. 파일은 총 3개까지 업로드 가능하다고 적혀있었고 일단 7월 개강하는 JAVA과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이미지를 슬라이더에 넣기 위해 JAVA과정 홍보 이미지 하나만 업로드를 하였다. 홈페이지가 새로고침되면서 홍보이미지가 제대로 적용되어 슬라이더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강좌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로고 밑에 있는 메뉴바에서 수강안내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 밑으로 슬라이드메뉴가 나타났다. 그 중 첫번째에 있는 강좌안내를 클릭하였다.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목록에는 이미지와 설명 모두 안나오고 빈 목록창이 나타났다. 그 밑에 입력버튼이 있어 입력버튼을 눌렀더니 강좌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났다. 강좌 제목과 강좌 내용 및 강좌 대표이미지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제대로 입력된 강좌 상세페이지가 나타났다. 제대로 입력된걸 확인한 박영업씨는 목록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 다시 강좌정보 목록 페이지로 돌아왔다. 강좌 대표이미지와 제목 그리고 내용이 한 5줄정도 미리보기로 표현되었다.

다음으로 수강신청, 상담신청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입력하기 위해 메뉴바에 있는 고객센터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밑으로 슬라이드메뉴가 나타났다. 그 중 첫번째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였다.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빈 목록창이 나타났다. 그 밑에 입력버튼이 있어 입력버튼을 눌렀더니 공지사항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났다. 작성자는 자동으로 관리자로 설정되어 있고 제목과 내용만 입력하면 되었다. 차례로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작성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고,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작성한 뒤 확인버튼을 누르고 목록으로 돌아갔다. 공지사항 목록에는 확성기 아이콘 붙어 파란색 굵은글씨로 공지사항들이 올라가 있었다.

다음으로 박영업씨는 상담신청을 한 뒤 상담이 확정되면 작성해서 가져와야 할 자료들의 양식을 자료실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메뉴바에서 커뮤니티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밑으로 슬라이드 메뉴가 나타났다. 그 중 두번째에 있는 자료실을 클릭하였다.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빈 목록창이 나타났다. 그 밑에 업로드 버튼이 있어 업로드 버튼을 눌렀더니 자료를 업로드하는 페이지가 나타났다.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쓰고 파일찾기를 눌러 이력서양식과 자기소개서 양식을 첨부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확인을 눌렀더니 상세페이지로 바뀌면서 제대로 파일까지 다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영업씨는 이 정도면 오늘 할일은 다 했다 생각하여 창을 종료했다.

2. 첫번째 과정 개강 후, 두번째 과정 개강 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강좌 정보 입력, 공지사항 수정, Q&A 답변

방문 날짜 : 2019/07/20 (첫번째 과정 개강 후, 두번째 과정 개강 전)

박영업씨는 두번째로 개강하는 DB과정의 강좌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았다. 아무 생각없이 메뉴바에서 수강안내에 마우스를 갖다대고 강좌정보를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입력 버튼이

없어 순간 병졌다. 그제야 자신이 로그인을 안 했다는 것을 자각하고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login/join]을 클릭하고 뜨는 모달창에서 로그인을 완료했다.

로그인을 해도 홈페이지에 원래 있던 장소는 그대로인 채 로그인이 된거라 바로 입력버튼을 클릭하면 되었다. 강좌입력 페이지로 넘어온 영업씨가 강좌 제목과 강좌 내용 및 강좌 대표이미지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제대로 입력된 강좌 상세페이지가 나타났다. 제대로 입력된걸 확인한 박영업씨는 목록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 다시 강좌정보 목록 페이지로 돌아왔다. 이미 전에 올려놓았던 자바과정 미리보기 위에 DB 과정의 대표이미지와 제목 그리고 내용이 한 5줄정도 미리보기로 표현되었다.

수강신청 절차가 약간 바뀐 것이 생각난 박영업씨는 이왕 홈페이지에 들어온 김에 공지사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로고 아래에 있는 메뉴바에서 커뮤니티로 마우스 커서를 옮겼다. 하위 메뉴가 슬라이드로 나타나자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했다. 공지사항 목록에서 수정하고자하는 수강신청 공지사항을 클릭했다. 상세페이지로 넘어가고 내용 우측 하단에 수정버튼을 눌렀다. 수정페이지에서 다른 것은 건드리지않고 바뀐 내용만 간단히 수정하였다. 수정된 상세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박영업씨는 그동안 밀린 Q&A답변을 하기 위해 메뉴바에 있는 고객센터 - Q&A를 클릭했다.

Q&A목록창에서 7월 18일 오후 6시까지의 게시글에는 답변이 달린 것을 보고 답변이 안 달린 문의글부터 차례로 답변을 등록하기 시작했다. 문의 상세페이지로 들어가 내용을 읽고 내용 우측 하단에 있는 답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답변을 달고 목록으로 나오는 것을 반복하였다. 목록창에 있는 모든 문의글에 답글이 제대로 달린 것을 확인하고 창을 종료하였다.

3. 세번째과정 개강 후, 첫번째 과정 수료 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수강후기 삭제, 자료 수정, 공지사항 삭제

방문 날짜 : 2019/10/05 (세번째과정 개강 후, 첫번째 과정 수료 후)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의 첫번째 강좌가 끝이 나서 수료식을 완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영업팀 박영업씨는 자신이 영업한 첫번째 강좌가 무사히 끝난 것을 보고 감회가 새로워졌다. 감상에 젖어있던 것도 잠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후기를 확인하던 박영업씨는 이상한 수강후기들이 올라온 것을 보고 삭제하기 위해 삭제버튼을 찾았다. 어딜봐도 삭제버튼이 안보이자 그제서야 자신이 영업팀 아이디로 로그인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 로그인창으로 넘어가 로그인을

하고 다시 수강후기 목록 페이지로 돌아왔다. 아까 이상하게 작성된 수강후기들을 모두 삭제처리했더니 속이 시원하였다.

수강후기를 다시 천천히 보던 박영업씨는 수료식을 하면서 수료생들에게 여러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 때 이력서 양식이 너무 올드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던 게 생각났다. 이왕 홈페이지에 방문한 김에 이력서 양식을 트렌드에 맞게 수정하고자 자료실 메뉴를 클릭했다. 이력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상세페이지로 가서 수정버튼을 눌러 이력서 양식을 수정했다.

홈페이지 이 곳 저 곳을 보던 박영업씨는 공지사항에 자신이 이미 예전에 올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글이 하나가 더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영업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확인도 안하고 올렸다는 것을 직감한 박영업씨는 공지사항 목록에서 해당 공지사항을 삭제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곳을 다시 점검한 박영업씨는 더 이상 수정할 목록은 없다고 판단하여 창을 종료하였다.

〈강사팀 유저 시나리오〉

유저 상세 : 강사팀 장강사씨

- 강사팀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
 - 로그인(로그인/로그아웃)
 - 학생관리
 - 출석관리(출석현황, 출석수정)
 - 성적관리(성적현황, 성적입력, 성적수정)
 - 과제관리(과제현황, 과제입력, 파일업로드, 파일다운로드, 과제 체점)
 - 1:1문의(상세보기, 답변, 수정, 삭제)
 - 강의자료관리(업로드, 수정, 삭제)
 - 일정확인(상세보기)
 - 쪽지(상세보기, 보내기, 받기, 답변하기)

1. 첫번째 과정 개강 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일정확인, 쪽지 보내기, 강의자료관리

방문 날짜 : 2019/06/30 (첫번째 과정 개강 전)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장강사씨는 개강 하루 전 일정도 확인할 겸, 강의 자료도 미리 올려 놓을 겸 비트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홈페이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e-learning 센터(LMS 시스템)에 들어온 장강사씨는 로그인을 하고 메인페이지로 접속하였다. 메인페이지에 바로 드는 달력을 통해 일정 확인을 쭉 했더니 자신이 예상한 강의 진행도보다 JAVA시험을 너무 일찍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전화로 하기는 좀 애매했던 강사씨는 쪽지기능을 통해 행정팀에게 시험날짜를 좀 더 미룰 수는 없는지 건의했다. 쪽지가 잘 전송된 것을 확인한 강사씨는 개강 전 초반 수업에 필요한 강의 자료들을 업로드하기 위해 강의자료관리 메뉴를 클릭했다. 여러 파일들을 한꺼번에 올리고 다시 목록을 보는데 잘못 올라간 강의자료가 있었다. 그 강의자료만 선택한 뒤 수정버튼을 눌러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업로드하였다.

2. 첫번째 과정 개강 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출석관리, 과제관리, 성적관리, 1:1문의, 쪽지 답변

방문 날짜 : 2019/07/30 (첫번째 과정 개강 후)

장강사씨는 요즘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다. 어느덧 개강한지 한달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너무 관리할 게 많아진 탓이다. 수업은 잘 하고 있었지만 아까 처음 수업 시작할 때 학생 몇명이 비곤 출결에 실패해서 대신 출결을 수정해주었다. 체크박스로 학생들을 선택하고 적용만 누르면 되는 작업이라 딱히 어렵지는 않았다.

4일 전에 첫번째로 시험도 보았는데, 채점을 해봤더니 결과가 참혹하였다. 일단 이 참혹한 점수를 학생들이 빨리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적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성적 입력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 박스가 활성화 되자 학생들에게 차례대로 채점한 점수를 기입해주고 확인버튼을 눌렀다. 새로고침을 통해 제대로 입력되었나 확인도 해보았다.

점수 입력 후에 메인페이지로 돌아왔더니 새롭게 쪽지가 도착해있었다. 쪽지를 클릭해 상세 내용을 보니 행정팀에서 온 쪽지였다. 선생님 반에 지금 출결에 곧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학생이 있으니 자신도 경고쪽지를 보내겠지만, 혹시 반에 출석하면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해주실 수 있냐는 쪽지였다. 답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잘 알겠으니 걱정하지마시라는 답변을 보냈다.

학생들이 생각난 김에 1:1문의에 새로운 문의들이 있는지 확인하러 1:1문의 메뉴를 클릭했다. 한 3명정도의 학생들이 시험점수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문의글 보낸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 막 시험점수를 입력했으며 재시험인 학생들에게는 친절히 재시험이라고 답변에 남겨주었다.

문의에 답변을 다 작성하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갔는데 과제현황에 벌써 과제 낸 애들이 몇명있는지 3개의 새로운 과제가 도착해있다고 표시되었다. 과제현황을 클릭했더니 자동적으로 과제관리페이지로 넘어갔고 학생들이 보낸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왕 확인한 김에 바로 과제파일들을 다운받고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해서 점수를 입력하였다. 할 일을 다 한 장강사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창을 종료했다.

<학원생 등록 전 회원 유저 시나리오>

유저 상세 : 학원생 등록 전 회원 강전회씨

- 학원생 등록 전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
 - 로그인(로그인/로그아웃)
 - 수강안내(강좌정보, 수강신청)
 - 마이페이지(수강신청현황, 내 게시글, 내 게시글에 달린 답글)
 - Q&A(상세보기, 입력, 수정, 삭제)
 - 자료실(자료보기, 자료다운로드)

1. 상담신청 후, 면담방문 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강좌정보보기, 자료 다운로드, 수강신청, Q&A 문의

방문 날짜 : 2019/06/25 (상담신청 후, 면담방문 전)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에서 7월 1일에 개강하는 자바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웹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강전회씨는 비회원일 때 상담신청한 게 오늘 연락이 와서 면담방문을 권유받았다. 행정팀은 면담에 몇가지 필요한 자료를 얘기해주시면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강전회씨는 홈페이지의 접속해 자료실 메뉴를 클릭했다. 이력서 양식과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 받으려고 하니까 로그인을 해야된다면서 자동으로 로그인창으로 연결되었다. 이미 얼마 전에 회원가입을 해 놓은 강전회씨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했다. 페이지가 자동으로 자료실로 돌아오고 자료실에서 해당 파일들의 제목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양식을 인쇄하여 열심히 적은 후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강전회씨는 면담을 무사히 받고 저녁에 다시 집에 돌아왔다. 면담을 받아보니 학원이 너무 맘에 들어서 수강신청을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그래도 면담때 면담선생님께서 지금 개강이 얼마남지 않아서 조기마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다급해진 강전회씨는 빠르게 홈페이지 메인에 들어오자마자 로그인버튼을 눌러 로그인했다. 수강신청메뉴로 가서 수강신청 버튼을 눌렀더니 기본정보는 이미 내 회원정보에서 가져온건지 자동 기입이 되어 있었고, 수강신청강좌를 JAVA과정으로 선택하고 미리 준비해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추가한 뒤 수강신청 확인 버튼을 눌렀다.

강전회씨는 잘 수강신청을 마쳤는데도 혹시나 수강신청이 안 될까봐 불안해진 나머지 Q&A에 문의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방금 수강신청했는데 언제쯤이면 확정이 되는지 Q&A에 문의를 남겼다. 강전회씨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 창을 종료했다.

2. 수강신청 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마이페이지, Q&A 문의

방문 날짜 : 2019/06/28 (수강신청 후)

강전회씨는 초조한 마음에 계속 해서 달력을 확인했다. 벌써 6월 28일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메뉴에 있는 수강신청현황을 확인해봤지만 어제까지만해도 처리중표시가 바뀌질 않았었다. 강전회씨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바뀌지 않았다면 문의를 또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홈페이지에 와서 로그인을 한 강전회씨는 바로 자신의 아이디를 클릭해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현황을 봤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라고 떠있었다. 답답해진 강전회씨는 다시 문의를 남기려고 마우스를 옮기는데 저번에 큐엔에이 남긴게 답글이 달렸는지 마이페이지 답글목록에 새롭게 글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그 게시글을 클릭했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서 당연히 자신의 비밀번호겠거니 하며 입력했지만 계속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알림창이 떴다. 강전회씨는 계속 시도했지만 5번 연속 아니라는 메세지만 뜰 뿐이었다. 결국 답글을 못보고 다시 Q&A를 남기기 위해 Q&A 메뉴를 클릭하여 글쓰기를 하였다. 초조한 마음을 가득담아 글쓰기 확인을 누른 강전회씨는 제발 수강신청 처리가 빨리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창을 종료했다.

하루종일 수강신청 처리만을 생각하던 강전회씨는 참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로그인을 해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갔더니 드디어 변하긴 변했는데 확정이 아닌 예비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다급해진 강전회씨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있는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 문의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예비는 언제 확정되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보통 7월 2일 저녁쯤에

확정된다고 전해왔고 강전희씨는 감사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제발 확정이 되길 소원하면서 강전희씨는 창을 종료했다.

3. 수강신청 실패 후 재방문

방문 주요 목적 : 마이페이지, Q&A 답변 열람, 강좌정보, 수강신청

방문 날짜 : 2019/07/03 (수강신청 실패 후)

7월 2일 저녁에 너무 피곤한 나머지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하지 못했던 강전희씨는 7월 3일 아침 일찍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를 확인했다. 신청현황에 탈락이라고 떠있는 걸 보자마자 우울해진 강전희씨는 창을 종료하려다가 큐엔에이 답변이 새로운 것을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답변을 확인해 보았다. 다시 수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혹시 몰라 DB과정에 대해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아주 상세한 답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괜찮은 커리큘럼과 강사님을 보고 수강신청 실패한 JAVA과정은 잊고 다시 DB과정을 수강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수강신청 페이지로 가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고 DB과정 선택한 다음 수강신청을 완료했다.

저녁에 혹시나 싶어 다시 접속해본 강전희씨는 마이페이지에서 DB과정 확정을 보고 뒤흔듯이 기뻐다. 확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lms시스템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라는 문구를 본 강전희씨는 신나서 홈페이지 메뉴바에 있는 e-learning 센터로 접속하였다. 로그인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메인페이지로 들어가졌지만 아직 개강하루전 시점이 아니였기때문에 메인만 확인되고 나머지는 확인해볼 수 없었다. 그래도 강전희씨는 기쁜 마음으로 창을 종료했다. 개강이 다가오면 그 때 다시 들어올 것을 다짐했다.

<학원생 등록 후 회원 유저 시나리오>

유저 상세 : 학원생 등록 후 회원 오후회씨

- 학원생 등록 후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
 - 로그인(로그인/로그아웃)
 - 일정확인(상세보기)
 - 마이클래스
 - 출결관리(출석체크 - 입실, 퇴실, 조퇴, 지각, 수업진행현황)

- 성적관리(성적확인, 이의신청)
- 과제관리(과제업로드, 과제수정)
- 1:1문의(상세보기, 입력, 수정, 삭제)

1. 개강 첫날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일정확인, 출결관리, 1:1문의

방문 날짜 : 2019/07/01 (개강 첫날)

비트교육 센터 안양지점에서 6월부터 웹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오후회씨는 개강첫날에 학원에 도착하여 e-learning 센터를 클릭해 LMS시스템으로 접속하였다. 로그인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로그인창이 떴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알림창이 떴다. 다시 아이디를 천천히 보니 오타가 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타를 수정하고 다시 엔터를 누르는데,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고 알림창이 떴다. 계속 시도 했지만 3회이상 틀렸다는 알림이 뜨며 계정이 잠겨버렸다.

일단 출석체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석체크를 할 수 없으니 강사님에게 부탁했다. 강사님은 출석체크를 해주시며, 가끔 비콘오류가 날때 자신에게 말하면 대신 출석체크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와중에 잠긴 계정을 풀기 위해 행정팀과 연락하고 새 비밀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했더니 잘 로그인 되었다.

일단 메인페이지에 접속하니 아까 강사님이 대신 해주신 출석이 잘 처리되어 입실로 출석현황이 떠 있었다. 메인페이지의 달력에서 강의 일정을 확인하며 계속 다음달로 넘겨 수료일까지 일정을 꼭 확인하였다.

그 후 수업을 들으면서 딱히 LMS시스템을 확인할 일이 없어서 아무 활동도 안하고 켜놓기만 했다. 자습시간에 퇴실이 생각나 다시 최소화되어 있던 창을 최대화 시켰는데 로그아웃되었다는 창이 떴다. 자동으로 5분정도가 지나면 로그아웃되는 시스템이구나 싶었다. 다시 로그인을 하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강사님께 1:1문의를 남겨놓고 창을 종료했다.

2. 첫번째 시험 후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출결관리, 과제업로드, 성적확인, 이의신청

방문 날짜 : 2019/08/02 (첫번째 시험 후)

오후회씨는 출석체크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도착해 로그인을 한방에 성공하고 바로 메인페이지에 있는 출석체크 눌렀다. 다행히도 출석현황이 지각처리가 아닌 입실완료로 바뀐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한숨 돌렸다. 자신이 지금까지 몇번정도 지각을 했는지 궁금해진 오후회씨는 출석현황을 클릭했더니 지금까지 한 지각횟수와 결석횟수, 조퇴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지금까지 수업진행률이 어느정도 됐는지도 궁금해진 오후회씨는 수업진행도도 확인했는데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르던 후회씨는 일단 저번에 시험본게 생각이 나 성적이 올라왔나 확인하러 마이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였다. 그 중 성적관리 메뉴를 클릭하고 성적 목록들을 쭉 확인하는데 처음으로 본 JAVA 시험의 성적이 0점이 뜬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뭐지 왜지 왜 0점이 뜬거지 고민하던 오후회씨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에 이름을 안 적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던 후회씨는 바로 이의신청 버튼을 눌러서 강사님께 죄송한데 이름을 안 적어서 0점처리 된 것 같다는 이의신청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오후회씨는 시험성적은 잊고 과제제출을 하기위해 과제관리메뉴를 클릭했다. 총 2가지의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각각 파일 업로드하는데 첫번째 과제는 잘 업로드되었지만, 두번째 과제에서 갑자기 파일업로드실패(파일의 크기가 너무 큼니다)라고 알림창이 떴다. 그래서 다시 파일을 압축 하고 해당 zip파일을 올렸더니 과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떴다. 과제 제출현황이 미제출에서 제출로 바뀐것을 다시 한번 하나 하나 확인한 오후회씨는 메인화면으로 돌아갔다. 저번에 과제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알고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지각제출처리 된 과제가 목록에 보였다. 여러번의 새로고침을 통해 다시 한번 제출현황을 확인한 오후회씨는 그제서야 창을 종료했다.

〈비회원 유저 시나리오〉

유저 상세 : 비회원 고비회씨

- 비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
 - 강좌정보, 수강후기, 강사진 소개 등 정보 단순 확인
 - 상담신청
 - Q&A(상세보기, 입력, 수정, 삭제)

1. 첫번째 과정 수료 후 첫번째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학원탐색, 강좌탐색, 수강후기열람, 상담신청, Q&A 문의

방문 날짜 : 2019/10/10 (첫번째 과정 수료 후 첫번째)

평소 소프트웨어 쪽 교육에 관심이 많고 언젠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고비회씨는 여러 소프트웨어 교육 사이트를 방문하다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원들을 발견했다. 그 중 7월달에 신설됐다는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메인페이지에서 슬라이더로 순환되고 있던 강좌 개강 이미지가 평소에 관심이 많던 자바과정,DB과정,WEB과정인 것을 보고 일단 JAVA과정의 이미지를 클릭했다. JAVA과정이 7월에 개강한다는 좀 예전 공지사항이었지만 해당 내용을 스크롤을 내리며 천천히 살펴 보던 고비회씨는 꽤 맘에 들어 아무래도 강좌정보를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로고 밑에 메뉴바에서 수강안내에 마우스를 갖다 대자 첫번째로 강좌 정보 메뉴가 보여 클릭했다. 여러 과정 중 자바과정을 클릭해서 자바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았다. 꽤 과정이 마음에 들은 고비회씨는 다시 메뉴바에서 학원소개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첫번째 메뉴인 학원안내를 클릭했다. 비트교육센터의 연혁이 꽤 오래되었고 생각보다 좋은 이념을 가진 대표자의 말에 신뢰를 얻은 비회씨는 두번째 메뉴인 강사진 소개를 클릭했다. 강사님들의 이미지와 짧은 소개와 경력사항들을 보니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 한번 면담을 받아볼까 생각한 비회씨는 세번째 메뉴인 오시는 길을 클릭하여 지도를 확인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일단 수강후기만 좋으면 면담 받기를 확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메뉴바에서 커뮤니티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 첫번째 메뉴로 수강후기가 있어 클릭했다. 수강후기 목록들 중에 끌리는 제목을 일단 클릭해서 상세페이지로 넘어갔다. 내용을 다 읽고 수강후기가 더 읽고 싶어서 다음글을 계속 클릭하며 넘어갔다. 한 5개를 연달아 보던 고비회씨는 JAVA과정에 대한 후기글만 보고싶어서 후기목록창에서 검색기능을 통해 자바반만을 검색해서 후기를 보기 시작했다. 상세 내용을 보며 계속 다음글로 넘어가다가 제일 처음 수강후기를 보고싶어서 목록창으로 돌아가 마지막 페이지 번호인 3을 클릭해서 보았다.

수강후기를 거의 다 읽은 고비회씨는 마음을 굳히고 화면 오른쪽에 상주하고 있는 퀵메뉴를 통해 상담신청을 눌렀다. 상담신청폼을 작성하고 보내기를 눌러 상담신청을 완료한 고비회씨는 다시 한번 오시는길을 확인하기 위해 오시는길 페이지로 이동하였다. 오시는 길을 확인하던 고비회씨는 자신이 수강신청폼에 메일만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게 생각나 Q&A게시판에 문의를 남기기로 했다. Q&A목록창으로 이동해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방금 상담신청한 고비회인데 메일보다 이 핸드폰번호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후 확인을 누르자 문의글이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비회씨는 연락을 기다리며 창을 종료했다.

2. 첫번째 과정 수료 후 두번째 방문

방문 주요 목적 : 회원가입

방문 날짜 : 2019/10/20 (첫번째 과정 수료 후 두번째)

얼마전 비트교육센터 안양지점에서 면담에 대한 연락을 받은 고비회씨는 면담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바로 메인에서 메뉴바-커뮤니티-자료실을 클릭한 고비회씨는 자료 목록창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받기 위해 클릭했는데 로그인 이 필요하다는 알림창이 떴다. 로그인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자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고비회씨는 로그인 버튼 아래에 있는 회원가입하기를 통해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갔다. 일단 약관을 동의하고 아이디를 입력한 후 아이디중복확인 버튼을 누르자 중복된 아이디라는 알림창이 떴다. 다시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눌렀더니 정상적으로 아이디 등록이 되었다는 창이 떴다. 비밀번호를 두번 입력하고 폼 제일 아래에 있는 가입버튼을 눌렀더니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창이 떴다. 비밀번호를 한 자 한 자 다시 입력하고 가입버튼을 다시 눌렀더니 이번엔 필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고 떴다.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는 칸에 빨간게 표시가 되어 핸드폰 번호를 제대로 입력하고 다시 가입버튼을 눌렀더니 그제서야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

고비회씨는 방금 회원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후 자료실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았다. 면담을 기대하며 고비회씨는 창을 종료했다.